

## 요나의 기도

### 온 1:17~2:10

#### 요나의 선택

여러분은 이곳에 어떻게 오게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오늘 아침이나 어제 저녁 때 친구와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면, 오늘 이곳에 오시지 못했을 지도 모릅니다. 이렇듯 선택은 결과를 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올바른 선택은 삶을 성공으로 이끌지만, 잘못된 선택은 삶을 실패로 전락시키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앙드레지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는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선택에서 제외된 나머지 것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선택이라는 것은 택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버려지는 것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택의 기준’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수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선택하는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선택할 때 비록 선택한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선택의 주체인 하나님께서 그를 돕고 보호해주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는 무엇을 선택했고, 무엇을 버렸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습니다. “니느웨로 가라, 그들의 악이 내 앞에 상달했다. 그러므로 가서 생명의 복음을,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나 요나는 그 음성을 듣고 갈등합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이방의 땅이요, 원수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앗수르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제 다시 앗수르로 가라고 하시는 걸까? 갈등 가운데 요나는 자신의 민족을 선택하고, 바다와 육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위해 재빨리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기 위해 배를 타고, 배 밑으로 내려가 깊은 잠에 빠집니다. 의식에서 무의식으로 도망을 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광풍을 보내서 배를 뒤집으시고, 선장을 보내서 요나를 흔들어 깨웁니다. ‘일어나라 너의 하나님께 구하라, 이런 상황에 잠을 잔다는 게 어찌된 일이나’ 요나는 선원들에게 광풍의 원인을 설명하며 말합니다. ‘너희가 살고 싶으냐 그러면 나를 바다에 던져라.’ 요나는 다시 도망치고 있습니다. 지역으로 도망갔다가, 무의식으로 도망갔다가, 이번에는 생명에서 죽음으로 도망을 갑니다. 죽음까지 불사하는 항변, 그 외침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요나는 이렇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제 겨우 이 백성이 살만 해졌고, 앗수르의 압제로부터 한숨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초라하고 보잘 것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지지리도 못 살게 만드시더니 이제 겨우 살 만해지니 다시 고난과 역경을 주시려 합니까.’

#### 얼굴을 감추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은 요나의 항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 어쩌면 타당한 항변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나는 자기 안에 갇혀서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나가 잊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을 선택했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나를 선지자로 세웠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을까요?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 열심히 살아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보다 잘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돈을 꾸고 비굴하게 사는 게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티끌조차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부르신 것은 그 민족을 먼저 선택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한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먼저 선택된 자의 복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하는 자에 대해 신명기 31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 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함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뇨 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지만, 자신을 등지고 멀리 가는 자에게 얼굴을 감추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그들을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버리실까요? 죽음까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요나가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갈 때는 전혀 마음이 괴롭지 않았습니다. 죽음에 갈 때까지 그 고집을 가지고 갔습니다.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았습니다.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배 밖으로 던져지고, 물 속으로 빠져 들어가면서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자신을 삼켜 버립니다. 그때 비로소 요나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고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바다에 던지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구나'라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2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삽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삽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의를 좇아 도망가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내버려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요나의 모든 것을 간섭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위해 큰 물고기를 준비해두셨습니다.

### 죽음을 통한 십자가의 표적

우리는 지난달까지 신명기 말씀으로 큐티를 했습니다. 저는 매일 큐티하면서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사람과 일을 하시는데,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선물로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고난을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선물인 이유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 준비한 물고기 뱃속이 고난의 학교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많은 고난 중에 죽음에 이르는 고난을 주신 걸까요? 요나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여기

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시던 어느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로 와서 표적을 보여 달라고 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정말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표적을 보여준다면, 예수를 믿겠다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하고 대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도 보이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기적을 손쉽게 이루시는 분이 그리스도임을 증명하길 요구하는 그들의 간절한 요구에 어떠한 기적도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으로 사흘을 있었듯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서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표적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떠한 죽음을 당할 것인지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주님께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기의 모든 것이 사라진 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 예수님의 죽음을 십자가로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언제나 요나와 같은 결정과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께서는 고난 가운데서, 죽고 싶은 심정 가운데서 십자가를 경험하셨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요나와 같은 고난이 올지라도 십자가를 경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요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특수학교에 넣으신 두 번째 이유는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이 의롭다는 생각으로 목숨까지 바치고 달려온 요나의 삶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철저히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자신의 삶이 자기 안에 갇혀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괴로워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도 사람에게 버림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 단절감을 느낍니다. 그 다음에 무력감을 느끼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하는 열등의식이 자기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버린 사람에 대한 분노도 함께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요나가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허무한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버림받는 고통을 아시기에 버림받은 가운데 있는 요나를 이해하시고, 그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버림받은 자를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요셉을 사용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도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요나는 그 고난가운데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깨닫고 자기의 본질을 발견합니다. 이제 요나는 모든 것을 다 버릴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기로 선택합니다. 2장 3절에서 7절까지 내용입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돌렸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돌렸으되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깊음이 나를 에웠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씻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삽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대개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을 숨기고 피해가려 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고난에 대해 정직하게 맞섭니다. 이것이 요나가 기도한 첫 번째 내용입니다.

###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감사기도**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회개의 기도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무엇이 자기로 하여금 고기 뱃속까지 이르게 했는지 다시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로 생각했던 민족이 그에게는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세 번째 요나의 기도는 9절 말씀에 나와있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그는 고기 뱃속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생명이 주께 있음을, 구원이 여호와께 있음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헌신의 기도, 서원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언제 이 물고기 뱃속의 기도원이 개방이 된 걸까요? 그것은 요나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할 때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일방적인 기도와 일방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대답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찾으셨지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바른 자리에 세우는 일을 합니다.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1장 9절에 보면 요나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지만 자신과는 관계없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2장 6절에 보면, 요나는 드디어 하나님을 자기 마음의 주인으로, 자기 삶의 왕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주님 앞에서 올바른 관계를 회복합니다.

### **‘그러나’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로**

1장을 보면 요나는 ‘그러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하시니, 그러나 그는 다시스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말씀하셨을 때, 그러나 요나는 잠을 잡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러나’로 응답합니다. 그러나 이제 요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신앙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러나’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로 바뀝니다. 2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주의 목전에서 쫓겨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복주시지 않을지라도, 내 모든 것을 가져갈

지라도,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절망가운데서 내 인생을 마칠지라도, 나의 참된 생명과 참된 천국의 주인이신 당신만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런 신앙으로 요나가 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오늘 요나와같이 ‘그러나’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로 바뀌는 신앙이 되길 축복합니다.

고난가운데 계십니까? 고난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십자가의 경험을 하게 해달라고, 십자가 위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 바른 관계만 회복된다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되고, 풀립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우리가 진정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지혜가 없음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함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십자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 모든 억압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살과 보혈로 대가를 치러주셨습니다. 그 살과 보혈이 여러분을 모든 어둠과 억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놀라운 은혜로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요나와 같은 자는 아니니까.

스올의 뱃속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십자가를 경험한 요나의 은혜를

저희에게도 허락하해 주옵소서.

예수를 알고 배우고 떠나가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와 함께 예수를 따르는

진정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온누리신문」 제공 - <http://www.onnurinews.com/>